

知的所有權보호 國際法制定 추진

美國·日本·유럽 企業들 주축...3月이전 結成

工業所有權 등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國際法 制定 움직임이 美國·日本·유럽의 민간기업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 日本工業新聞에 따르면 日經團連, 美 IBM 등 11개 대기업으로 구성된 知的所有權委員會(IPC), 유럽산업연맹등은 오는 3월 이전에 회합을 갖고 연합기구를 결성, 知的所有權에 관한 국제적인 최저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IBM·GM·CE·듀폰등 美國의 대기업들로 구성된 IPC는 知的所有權 보호를 통해 경쟁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이번에 연합기구의 결성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합기구는 국제적인 知的所有權보호문제를 다루기 위해 현재 각국에서 보호해야 할 知的所有權에 대한 최저 기준(Minimum Standard)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이 기구는 선진국이 개발한 特許品을 무단복제 사용하고 있는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수집함으로써 特許權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전기통신기술과 生命工學기술보호 ▲컴퓨터네트워크의 프로토콜(통신처리手順) 보호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독점금지법 운용문제등도 아울러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日經團連은 내달중으로 열릴 회합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기술위원회 知的所有權部 아래에 실무전문팀을 최근 구성했다.

特許廳 27個書式 捺印制度 폐지 國務會議 審議확정 금년중 全面施行

政府가 지난해 「成長發展을 위한 制度改善 主要政策課題」로 추진하여 12月 11日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된 「민원달인제도」 개선에 따라 特許廳에서 시행하는 27個 書式의 달인제도가 폐지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行政措置로 가능한 事項은 을 1月 1日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근거법령 改正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事項은 을 年末까지 改正하여 시행토록 할 計劃이다.

개선대상 民願書式의 名稱은 다음과 같다.

- ▲辨理士실무수습 신청서 ▲辨理士(更新登錄 申請서) ▲登錄명의 변경(개정)登錄人표시 신청서 ▲(登錄權에 대한 權利의) 변경登錄 申請서 ▲特許證再交付 申請서 ▲商標登錄料

- 納付期間연장 申請서 ▲法定(지정)期間연장신청서 ▲등본·열람·복사신청서 ▲辨理士자격증발급 申請서 ▲辨理士登錄事項변경 신고서 ▲發明品에 대한 營業稅(소득세·물품세면제 신고서) ▲明發明品의 외국생산인정 申請서 ▲發明品에 대한 관세면제 신고서 ▲發明獎勵보조금 交付申請서 ▲登錄명의인 표시변경·개정·登錄申請서 ▲商標登錄證재교부 申請서 ▲辨理士開業(休業) 신고확인서 ▲特許證정정교부신청서 ▲도면(의견)제출서 ▲명백한 오기의 정정 申請서 ▲자료(열람·복사)신청서 ▲審判, 청구, 계류, 확정 사실증명원 ▲發明獎勵館 전시신청서 ▲全國優秀發明品展示會 출품신청서 ▲재직(퇴직, 경력) 증명신청서 <8>